

아주대의료원소식

2004

2

통권 제 109호 / 발행일 2004. 2.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제11대 총장 취임식
세계수준의 대학을 향한 힘찬
행보를!
- 6 **특별기고**
2004년 개원 10주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 8 **내외 연구 내외대학**
E형 감염바이러스 중식의 역제
- 9 **·특·** **·특·** **·특·**
건강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 10 **·특·**
여속불가능 부정맥
- 12 **·특·**
부은 풍속에 다녀온 일본 민수
- 14 **·특·**
- 16 **·특·**
선생님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해요
- 17 **·특·**
공정·평등·자유·인간성·
공익·신뢰·
공정·평등·자유·인간성·
공익·신뢰·
- 26 **·특·**
간호사의 사명감을 알기 해 준
소중한 경험
- 27 **·특·**
외과 큰 맥락이 존재하는 곳
- 28 **·특·**
- 32 **·특·**
- 신경인신항관
- 남종욱과 열노
- 34 **·특·**
- 35 **·특·**
- 36 **·특·**
- 38 **·특·**
- 39 **·특·**

세계수준의 대학으로의 행보 - 아주대학교 제11대 박재운 총장 취임-



지금까지의 아주대학교 명성을 계승하면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고 조정해 줄 아주대학교 신입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제11대 총장에 취임한 박재운 박사는 공직자와 경영자의 경험을 살려, 아주대학교가 아시아시대를 리드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재운 총장은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의료원 구성원과 함께 기존 발전마스터플랜을 보완하고, 각 구성원들이 헌신과 봉사,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한 아주대학교의 새로운 행보는 머지않아 그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향한 힘찬 행보를!

존경하는 아주대학교 김현남 초대 학장님, 저의 중학교 은사이신 성은경 선생님, 저의 대학교 은사이신 이현재 전 국무총리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김우식 연세대학교 총장님, 금강대학교 박봉식 총장님, 명지대학교 선우중호 총장님,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님,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님, 고려대학교 어운대 총장님, 저가 짧게나마 보람 있는 교수생활을 했던 순천향대학교의 서교일 총장님, 저가 오랜 교수생활을 했던 서울대학교의 정영일, 정기준, 강광하 교수님,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새벽길을 달려오신 임광식, 김광수, 김영상, 임재택, 하용수 교수님,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지역 유지 여러분, 경향 각지에서 와 주신 저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동문, 그리고 ROTC1기 동기 여러분,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윤원석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 여러분, 이해진 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 외에도 경향 각지에서 와 주신 친지 여러분과, 그리고 아주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따뜻한 말씀을 보내 주신 저의 고등학교 은사이신 서문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축하의 깊은 뜻을 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엔 아주대학교 총장에 취임하게된 것을 생애 최고의 영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순의 저의 어머니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도 지금까지의 어떠한 경우보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의 자리는 국가적으로 더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대학 총장의 자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을 하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 차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제게 맡겨진 아주대학교 총장의 직책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정관과 아주대학교의 학칙과 그리고 저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올바르게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총장이라는 이 막중한 직책을 맡으면서 먼저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은 중세 말 서구에서 생겨나서 발전해 왔고,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학의 발전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역할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학이 그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 온 것입니다.

대학은 세계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지도적인 인재가 될 젊은이들의 지성을 계발하고 인격을 연마시키는 교육의 역할과, 역사의 발전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해 내는 연구의 역할, 그리고 상아탑의 벽을 넘어서 현실사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봉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대학의 존립 이유이며, 또한 대학의 본질이요 생명으로서, 대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은 모두 이러한 역할을 수월적으로 수행해온 대학들입니다.

특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후 지금까지 앞선 기술과 이론으로써 세계 초일류 국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수월적으로 수행해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국가적 발전은 시대의 진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기술과 이론의 개발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한 대학의 역할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우선 근대적인 대학교육체제의 출발부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우리 나라 대학들은 양적으로는 상당한 팽창과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는 질적인 발전이 수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미흡했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론과 기술을 거의 모두 선진외국으로부터 도입해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 대학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개방과 경쟁과 정보화가 세계와 인류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21세기에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 대학들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대학이 진정으로 국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인 자신과 정부와 그리고 모든 사회인들이 대학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율적 학문공동체」입니다. 대학은 본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자율적 학문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러한 자율적 전통은 대학의 생명이요 본질로서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율」 즉 autonomy란 말의 뜻은 원래 그리스어로서 「스스로」란 의미의 「auto」와 「법」이란 뜻의 「nomos」의 결합어로서 곧 스스로가 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외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곧 스스로를 반성하고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책임있는 존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율은 곧 자유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자율적 존재자인 대학은 진리탐구를 위해서는 타인에게 통제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 즉 「학문의 자유」를 지니지만, 또한 스스

로를 규율하는 엄정한 「책임」을 아울러 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대학발전의 세가지 중요한 조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내부적으로 대학인들 스스로가 투철한 역사적의식을 가지고 대학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인은 과거를 성찰하면서 현재에 충실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엄한 자기비판과 용기있는 자기개혁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규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외부 세계를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와 사회가 대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대학을 「관리하고 간섭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학문의 산실로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인재양성기관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학의 제도와 정책을 정부가 만들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만들게 해야 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만든 제도와 정책을 정부와 사회는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사회는 대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학은 물질적 가치를 먹고 자라면서 정신적 가치를 생산합니다. 반면에 국가와 사회는 대학이 생산한 정신적 가치를 활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자양을 공급해 주는 공생관계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대학에 대해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아주대학교는 1973년 3월 15일에 조국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 개교를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빛나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는 지금까지의 명성을 계승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서 저는 서울 도심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이 대학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리고, 뛰어난 교수님들의 역량과 성실하고

의욕적인 학생들의 기질,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아주대학교를 「세계수준의 대학(World Class University)」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꿈은 지난해 3월 개교 30주년을 맞아 아주대학교의 모든 가족이 공유하게 된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꿈을 가칭 「세계적 아주사업(Global Asia Project, GAP)」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아주사업」이란 아주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시대를 아주대학교가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학문분야일 수도 있고 대학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대학교 내외의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12개년 계획을 기존의 우리 대학 발전마스터플랜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역시 학내외의 중지를 모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초기 4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아주사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수한 대학들 중 우리 아주대학교와 특성을 같이하는 소수의 핵심 대학들과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세계적 아주사업」은 하루 아침에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내부의 역량이 결집되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아주대학교는 아태지역의 핵심 대학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선진대학, 국내적으로는 선도대학의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저는 아주대학교를 이와 같이 「세계수준의 대학, World Class University」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원대한 꿈을 아주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모두가 이 꿈의 성취를 위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바라신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십시오. 노력과 수고, 헌신과 봉사, 참여와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

게 해서 얻어진 결과로서의 아주대학교 발전의 수확은 누구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대학교가 어렵고도 중요한 시점에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우리 아주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수 여러분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교수 여러분의 배전의 열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찰자와 비판자에 머물지 말고, 참여자와 담당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친애하는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직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21세기의 아주대학교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아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행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노력과 봉사, 과감한 자기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우리 대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행정체제를 「세계수준의 대학」의 수준에 맞도록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행정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 역시 아주대학교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아껴 자신의 계발과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에 자기 몫을 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그의 몫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아주대학교 동문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든 터전과 기초가 되었던 모교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맡아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여러분의 모교가 그 수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교에 대한 동문 여러분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흔히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모교 아주대학교의 끊임 없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

아주대학교는 625명의 교수, 275명의 강사, 2,729명의 직원, 263명의 전공의, 162명의 조교, 16,220명의 학생, 그리고 4만 여명의 동문들을 포함하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 아주대학교가 영광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클라크 커어(Clark Kerr) 박사는 「대학총장은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전망, 그리고 현재의 현실 사이의 중심적인 조정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은 조정자일 뿐 아니라 또한 연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서 저는 아주대학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또한 대학 내부의 교육과 연구, 이론과 실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개인적 야심과 공동체의 열망, 그리고 모든 아주대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조정하여 그렇게 모여진 힘을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아주대학교의 대외적인 연결망을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것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으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대학을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관리와 간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을 믿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규제하거나 간섭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 성원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지원과 협조의 효과는 그렇게 금방 쉽사리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1892년 미국의 유명한 재벌 록펠러가 시카고대학을 설립하면서 당시 하버드대학의 엘리엇 총장에게 훌륭한 대학을 만드는 데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엘리엇 총장은 그것은 바로 「시간과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에서 훌륭한 성과가 국가와 사회에 환원되는 데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먼저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그 성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머지않아 대학은 반드시 그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

여러분은 우리 아주대학교가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및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아시아 최고의 대학이라는 의미를 담아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는 아시아 중심의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하고 그때 아주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서 아시아를 리드하는 최고의 대학이 되라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염원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염원의 주인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염원을 실현시켜 가는 주역이 됩시다. 아주대학교가 새로운 밀레니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앞장서서 열어 가는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모두 힘찬 행보를 내디딤시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15일
아주대학교 제 11대 총장 박 재 윤

아주대학교 제11대 박재윤 총장은 1963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년 이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이다. 특히, 부산대학교 총장 재임시에는 부산대학교의 국제화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박재윤 총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경륜과 국가 장래에 대한 식견이 탁월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5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로부터 Henry M. Oliver Economic Theory Award를 수상했으며, 199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2004년, 개원 10주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은 금년 9월12일 개원 10주년을 맞이한다. 1994년 개원한 이래, 초기의 각종 어려움과 IMF 외 환위기, 의약분업 및 학내문제, 노사갈등 등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더구나 2003년에는 모든 교직원들의 단합과 노력의 결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제 2004년은 성인이 되기 위해 미래를 설계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할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란 소아의 어린 티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2004년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항상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며 우리 주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들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의료환경은 극심한 혼돈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돈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의료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변화의 첫걸음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4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금년의 어려운 국가환경과 의료환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미래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임하여야 하겠다.

첫째는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다. 지금까지 환자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지난번 일본의료계 단기연수팀의 보고회에서 일본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는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지만 한 차원씩 더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병원도 임상과장 및 임상교수들, 또한 각 부서장 및 부서원들이 합심하여 자신의 부서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환자에 대한 예의의 지연이나 검사의 지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 등이 이러한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진료의 질 향상(care quality)이다. 교수, 전공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모두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2002년과 2003년에는 의료분쟁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줄여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의료분쟁을 줄이는 것은 질 향상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합병증을 줄여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여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환자들의 입장에서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움직일 때 높아지는 신뢰 속에서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이 실현될 수 있다. 고객감동 수준까지 진료의 질을 높인다면 의료분쟁을 비롯한 많은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

Care Quality | 진료의 질 향상

Cost Reduction | 원가절감

Community Service |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봉사

셋째는 원가절감(cost reduction)이다. 금년 7월1일부터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주말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입장에서 볼 때 인력증가에 의한 비용증가는 곧 원가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경쟁력 저하와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특히 금년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운데에서 수 가인상은 2.65%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부서는 인력 부족을 단순히 증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업무를 조정하여 탄력성과 유연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시스템의 전환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봉사(community service)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료영역은 경기도 남부지역을 넘어 중부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남부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원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베풀 필요가 있다. 인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병원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이상과 같은 「4C」 전략으로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노력한다면 원만한 청소년기를 지나 훌륭한 성년기를 맞을 것이다. 로마서 12장의 성경말씀 중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있다. 계속되는 말씀 중에는 『혹 섬기는 자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처럼 2004년은 역동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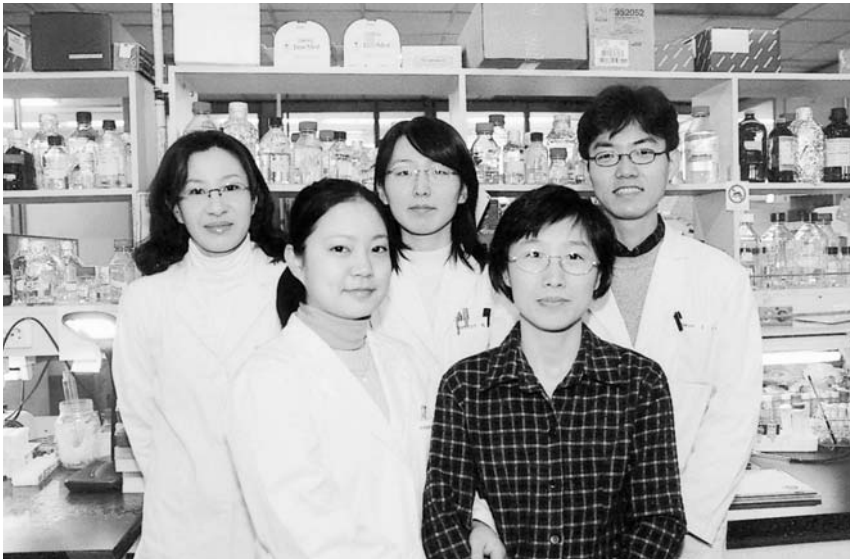
홍 창 호 / 병원장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의 억제

의과대학에서 미생물학과 면역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대부분 의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증까지 있다고 하면 임상이가 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미생물학은 면역학을 포함한다). 마지막 내과 실습에서 긴장했던 남자 고등학생이 약제 저항성 결핵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핵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고, 운이 좋게도 결핵균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 지도로 결핵균 세포벽의 특이한 지질 성분(phenolic glycolipid)이 사람의 방어 세포의 하나인 단핵구내에서 결핵균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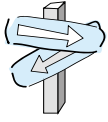
▲ 미생물학교실 연구진들과 함께 (앞줄 오른쪽이 박선 교수)

그러나 박사과정 중에 아주대학교에서 연구강사로 근무하게 되어 결핵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었다. 대신,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많고, 만성 B형 간염에 따른 간암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갔으며, 아주대학교에 간과 B형 간염 연구자들이 많아 팀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대학원생들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 중 간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가 좀더 나은 치료방법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궁금해 한다. 의과대학 본과 과정은 미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 과목과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임상의학 과목으로 나뉘어진다. 임상의학 과목을 배우면서 병원 실습을 하게 되고, 직접 환자들을 접하면서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우리 나라 기초의학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기사를 읽고 의대를 선택했던 나는 기초 의학을 배우면서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 고민하였고, 병원 실습을 하면서 임상이는 내 적성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치료 후 퇴원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의 모습이 더 가슴에 남았고,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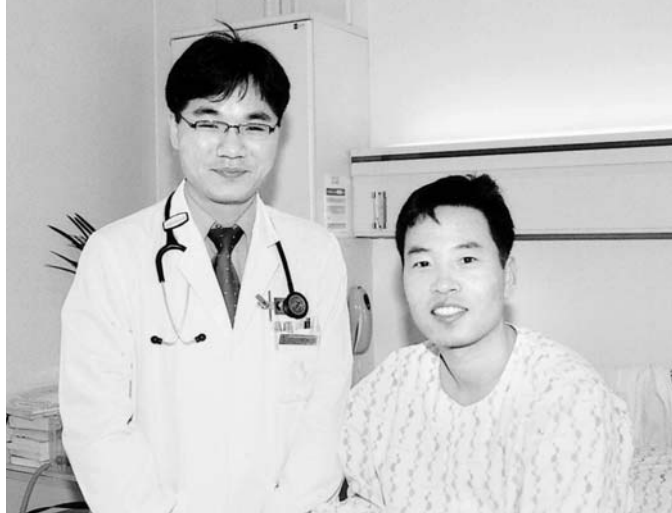
재미있게 배웠던 면역학 때문에 미생물학교실에서 조교 생활과 동시에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박 선 교수 / 미생물학교실



건강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어릴적 별똥별이 지는 걸 보면 재빠르게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난다. 그 시간이 워낙 짧아서 평소에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모두 빌지 못하고 별똥별은 지고 만다. 1년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지내면서 느낀 점을 별똥별에 소원을 빌듯 이야기해 본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담·취장계 질환으로 일찍 여의고 의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옆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어린 내게는 너무나 안쓰러웠던거보다. 그런 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결국 의사가 되었고, 내 주위에는 온통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만 계시다는 걸 알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처음의 어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도 피곤한 몸과 마음에 짓눌리는 걸 느꼈다. 그럴 땐 정말 도망갈 곳조차 없어 보였다.

문득 내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곳엔 내 동료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더불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얼굴 찡그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그들의 얼굴들이 내게는 희망이고,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힘들 땐 짜증을 내고 그 짜증은 마치 전염되듯 병원에 번져나간다. 마치 녹이 쇠를 녹여 먹듯이...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는 것 같다. 환(患)을 치료하는 자인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있다. 거의 하루 종일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배우게 해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병원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위조지폐를 가

리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조지폐를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정상지폐를 많이 만지다 보면 위조지폐가 손에 걸린다고 한다. 환을 고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 같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건강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자를 잘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동료

병원가족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당히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동료가 힘들어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는 천금과 비교할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의 꿈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바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다 보니, 내가 꿈꾸는 의류인은 「내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결론이 맺어진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나니 아주 깊은 밤이 되었다. 힘들 땐 가끔 하늘을 보자. 밤이 깊어갈수록 더 빛나는 별빛처럼,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잠잠한 마음에 우리 모두가 그들의 희망의 별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我日飛白(I'll be back)



예측 불가능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로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은 보통 분당 60회에서 100회의 속도로 규칙적으로 뛰며 이 범위를 벗어나 빠르거나 느리게 뛸 때 혹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나타날 때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은 발생위치, 기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임상적 의미나 중요성도 제각각이다.



예측불가능한 부정맥

정상적인 일반인의 60~70%에서 관찰되는 간헐적인 조기박동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맥이 건너 뛰거나 가슴이 덜컥하면서 기운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빈맥의 경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느닷없이 가슴이 쿵광거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의 흉부 불쾌감, 어지러움, 흉통, 실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은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하게 된다. 심한 경우 심실성 빈맥과 같은 치사성 부정맥이 발생하면 혈액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증상이 없어진 상태이고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병 환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심전기생리검사로 언제든지 진단 가능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심전도, 24시간 보행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Event

Recorder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부정맥이 발생했을 당시에 시행해야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특히 발작성 빈맥의 경우에는 진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부정맥을 언제든지 진단할 수 있는 정밀 검사법으로 심전기생리검사(Electrophysiologic Study)가 있다.

담배, 커피, 스트레스는 무조건 NO!

조기박동은 특별한 치료 없이 담배, 커피, 스트레스 등 유발원인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베타차단제 등 약물요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빈맥의 경우 특히 발작성 빈맥은 항부정맥 제제로 약물치료가 가능하지만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는 점과 재발율, 약물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심전기생리검사를 통한 전극도자절제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완치가 가능한,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심한 서맥의 경우는 심박동기를 삽입함으로써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치사성 심실성 빈맥은 체내 제세동기(ICD)를 삽입함으로써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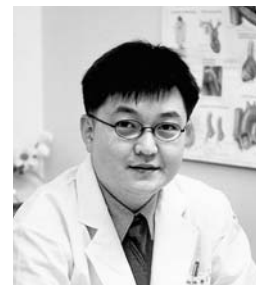
한 번에 완치



한 번의 치료로 완치, 전극도자절제술

심전기생리검사는 부분마취 후 좌우 대퇴부(넓적다리) 정맥, 쇄골하 정맥을 통해 전극도자(electrode)를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 His속, 관상정맥동 등에 위치시키고 프로그램화된 전기자극방법으로 전기자극을 주어 심장의 부정맥을 진단한다. 여기에는 우회로(bypass tract)나 방실결절의 이중회로를 이용한 상심실성빈맥,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실빈맥, 심실세동과 같은 빈맥성 부정맥과 동기능부전증후군, 방실차단 등 서맥성 부정맥 모두 해당된다.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은 심전기생리검사로 우회로나 부정맥의 발원지인 국소적 병변을 찾아 고주파 에너지를 가하여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회 시술로 95% 이상의 높은 성공률과 10% 이하의 낮은 재발률을 보이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또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다른 시술에 비해 매우 낮아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기도 하다.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부정맥 치료를 위해 평생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하면 한번 시술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매년 150

례 이상의 심전기생리검사를 시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점차 시술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황 교 승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부푼 꿈속에 다녀온 일본 연수

눈이 하얗게 내린 12월8일 아침. 새벽부터 내린 눈길 위에 차들이 거북이 걸음이다. 인천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난지도 30분. 애써 태연한 척 앉아 있었지만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뜰까,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들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을 다급히 찾았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이 제 시간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의료원 사람들이구나」 싶었다. 미안함도 잠시, 정신없이 짐을 끌고 비행기에 올랐으나 비행기 날개의 얼음제거 작업 때문에 30분이나 지연되어 이륙했다. 때문에 우리는 동경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에 쫓겨 린카이병원 견학에 나서야 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번 일본연수에 동승한 삼성병원(3명), 일산병원(6명)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도 우리같이 모범직원 포상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다고 하나 윗분들은 거의 없고 평균나이가 서른 정도로 보이는 평직원으로 구성되어 우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주최 측이라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중후하게 흐르고 있었다.

바다를 메운 땅위에 지어진 린카이병원을 둘러보고 늦은 저녁식사를 한 후 9시가 넘어서야 여장을 풀었다. 낯설어서 그런지 견학보다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았다. 다음날 국립병원 의료정보네트워크의 헤드쿼터라는 동경대학병원과 오랜 전통과 의료계 학벌의 중심인 기타사또병원 견학을 했고, 3일째는 노인병원과 지케이 대학병원을 견학했다. 3일째가 되니 선택적 경청이 시작됐다. 더 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각자가 궁금한 것만 골라 보게 되는 피가 생겼다. 어찌피 돌아가면 내가 일하는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기억날 것 같고 기억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카메라 촬영도 제한이 많아 직접 진료에 관련된 것은 거의 못 찍고 시설이나 외관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막히던지 일본도 우리 나라 못지않게 퇴근시간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다. 견학 마지막날 165년의 역사를 가진 준텐도 병원을 방문했는데 온화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돋보이는 병원으로써 오랜 전통과 최신의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점이 특징이었다. 5,6일째는 하코네관광, 디즈니랜드, 후지산을 관광할 예정이었는데 추고비가 와서 대충 돌아보고 왔다. 짧은 일정을 마치고 신주쿠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지산은 만년설로 덮인 하얀 봉우리를 살짝 보여주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을 차례로 견학하며 느낀 점은 경기불황으로 90% 이상이 몇 년째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환자중심의 병원경영을 위해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MR, DRG, 바코드시스템 물류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진료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철저히 외주영역에 맡김으로써 서비스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또 동선이나 채광을 고려하여 지은 삼각형 구도의 건물이 많았고, 4인실 사용이 기본이며 본인 부담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제도가 앞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접촉이 있었겠지만 가는 곳마다 우리 일행을 위해 차(tea)를 준비하고 병원 견학도 같이하며 버스



▲ EMR 모니터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관리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을 공인된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여 경영의 합리화는 물론 일본 특유의 친절 서비스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업운영팀 / 윤학근 팀장

준텐도대학병원의 물품(소모품) 정량공급제는 모바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인서버로 물품 공급 및 재고정보를 전송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동경대학병원은 모든 소모품에도 바코드를 부착, 전산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학팀 / 박진명

준공한 지 15~20년 가까이 경과된 건물이 거의 신축 건물 같이 보였다는 자체는 시설관리원 개개인이 프로정신을 갖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원 건물 및 시설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시설관리팀 / 이진풍 팀장

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며 배웅하는 그들을 보며 말은 안통해도 마치 옆 동네 사람처럼 친근함이 느껴졌다.

이번 단기연수를 통해 정작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PACS, DRG가 아직 운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 견학의 목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충분했던 것 같다. 이번 해외연

수를 통해 좋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동하는 버스나 휴식시간에 나는 대화들이다. 언제 다시 각 부서나 직위 고하를 망라하여 같이 먹고 자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을까? 9년이나 근무하면서도 이번 여행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니 우리의 한계를 느낀다. 같은 곳에 근무하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력이 쌓일수록 실감하게 된다. 교직원 게시판이라도 자주 둘러 의료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을 접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다음 포상자들을 위한 연수를 위하여 한마디 더 부연을 한다면 해외연수단의 팀 구성에 따라 견학코스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하나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 1기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행서인지 포상휴가로 떠나



▲ 2003년도 모범교직원 해외 연수단.

는 여행이었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뻣뻣한 일정에 아플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2기부터는 포상과 연수가 구분되어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상호 만족하는 선을 정했으면 한다. 지금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도약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우리 연수단은 「2003 드림팀」을 구성하고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귀중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매년 이어지

길 바라며 교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 이번 해외연수단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관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읽는 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떠날 때 설렘보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5박6일간의 공백을 기꺼이 메워 준 동료들과 곁에 없으니 사람 사는 게 아니라던 남편, 장난감 자동차를 사러 간 줄 알고 있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김진주 간호사 / 정신과 병동

기타사또병원의 재활의학과는 규모가 우리 병원보다 작았지만 치료시간은 환자 1인당 20~40분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일본의 재활치료 진료수가 체계는 가산점제도 수가를 반영하고 있어 병원 종류별, 치료시기 그리고 병동별로 수가가 다르게 책정된다. 재활의학과 / 김행란

린카이 병원은 TREND라는 명칭의 전산화 시스템이 병원의 모든 진료, 검사, 행정시스템을 통합한 하나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후지쓰사에서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하였다고 한다. EMR을 시행한 병원에서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해 개원초기부터 적용한 까닭에 사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기타사또 병원은 대학병원답게 방사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인근 히다찌사와 협력하여 두 대의 개방형 MRI를 공급받아 자기공명 영상과 중재시술을 병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기법의 시술인 경우, 고도진료라 하여 환자와 협의하에 별도 수가를 책정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진단방사선과학교실 / 조재현 교수

인술단장으로서 금번 일본의료계 단기연수과정은 교원 2명, 일반직원 9명, 인술단장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원 9주년 모범교직원 표창 보상성격의 연수과정이었다. 비용절약을 위해 진행부서에서 짠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피곤한데도 각 분야에 대해 교직원들이 하나라도 더 보고 알려고 질문하고 사진 찍고 열성을 내는데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뭉클하였다. 아울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다. 최영 / 행정부원장

5층 집중치료실, 삶과 이별이 공존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아침에는 웃고 저녁에는 눈물 지으며 생명을 존경하고 죽음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5층 집중치료실은 「살려보자, 살려보자!」는 가족의 희망을 눈높이 삼아 빠른 회복과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 하루를 보낸다.

5층 집중치료실에는 총 21개 병상이 준비되어 있고,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간호사(멋진 남자 간호사 2명을 포함한 건강하고 예쁜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미남, 미녀 군단 36명)와 7명의 보조원 그리고 항상 바다까지도 반짝이게 관리해 주시는 청소원 1명이 어우러져 깨끗한 환경과 능숙한 치료 및 간호를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집중치료실은 상태가 복잡적이고 정말 어려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최신의 장비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5층 집중치료실은 가장 많은 처치와 치료가 요구되는 중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환자 감시 장치, 투석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추고, 호흡기 질환 치료와 집중적인 활력 징후의 확인 및 기타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죽는구나 했는데 살았노라」는 환자분의 말씀에 함께 가슴 쓸어내리며 보람을 느끼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가족들이 한 번 더 함께할 시간의 배려에 정성을 쏟는 5층 집중치료실 간호

내과계 중환자실 실장인 황성철 교수가 말하는 5ICU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현대 의학의 발달로 각종 장기이식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중증의 환자도 연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느 병원이든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환자감시 장치로 무장하고, 전문치료 인력, 잘 훈련되고 손발을 맞춘 치료팀이 하나로 뭉쳐,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 하나 하나를 되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밝고 낮이며, 명절과 휴일의 개념마저도 없고 지내는 우리 병원 5층의 내과계 중환자실!

중환자의 희생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연이나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작은 정성과 노력, 끈기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더 한층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다.

곳



사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도 넘치는 사랑과 사명감으로 노력한다. 우리의 목표는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등 마사지와 자세 변경, 머리 감기기, 목욕 시키기, 배변 관리, 흡여나 감염되지 않을까 강박적인 손 씻기와 보호자 교육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스스로 만족한 간호를 넘어서 보호자가 감동하는 간호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분의 들리지 않는 말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며, 질환을 알고 대처하는 전문성을 유지, 증진하기에 게을리 하지 않는 자세가 5층 집중치료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존재 가능한 이유이다.



송민재 간호사가 말하는 5ICU



퇴원을 하신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중환자실을 건강하게 나가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작은 보람을 느낀다. 간호사가 자신의 천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5층 집중치료실의 자랑거리를 꼽는다면 탄탄한 조직력을 들 수 있다. 힘든 일들을 서로 도와서 해결해 나가고 무엇보다 사적인 일들도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가족애가 있어 5ICU에 애정이 간다.

5층 집중치료실에서는 간혹 AIDS, 결핵과 같이 엄격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를 병명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나 가족처럼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이런 분들을 간호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선생님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해요

보 기 드물게 눈부시게 푸른 겨울 하늘이다. 간밤에 내린 눈 때문인지 온 세상이 맑고 청명하다. 이런 날이면 문득 떠오르는 인연이 있다. 그 소중한 인연은 지금은 구체적인 연락이나 왕래는 없으나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자리하고 있다. 상대의 마음이야 어찌 되었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할 뿐이다.

4년 전 겨울, 외래 진료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그 분은 반복되는 유산을 5번이나 경험하였고, 급기야는 계속되는 유산수술로 인하여 골반염을 심하게 앓아 양쪽 난관이 모두 막혀 있었고, 게다가 자궁내막도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의사를 대할 때 약간의 경계심이 있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에 성공할 수 없으니, 그것이 자기 탓도 의사 탓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공격적이고, 폐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나를 처음 봤을 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신보다 젊어 보이는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었던 것 같다.

나는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과 난관 협착으로 인한 이차성 불임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나갔고, 마치 의과대학 시절 처음 임상실습을 나왔을 때처럼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복강경 수술로 난관 협착부위를 확인하였다. 다행히도 그 분은 난관의 거의 끝만 막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로 복원이 가능하였다. 자궁내막의 유착도 수술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만큼은 복원을 하였다. 이후 임신을 시도하는 중 2번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임신은 되었지만 역시 유지가 안 되고 임신초기에 유산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지쳐갔고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다시 나를 찾을 때는 속으로는 이젠 포기하실 때도 되었는데 하는 마음까지도 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 분의 말 한마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 안해요』

참으로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꽂혔다.

「아, 이 사람은 오로지 나만 믿고 있구나. 모든 희망을 나에게 걸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차라리 환자가 포기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구나. 난 참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환자가 저렇게까지 나를 믿는다면 그래, 할 수 있을 거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다」

환자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도우셨을까. 그 분은 나 이 마흔이 다 되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날 눈이 참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한다. 아직도 선하다. 아이의 태초 음이 엄마의 귓가에 맴돌던 날, 거의 영영 울다시피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던 그 모습을.

세월이 조금은 지나버린 지금, 난 오히려 그 분께 감사한다. 환자와 의사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믿음은 가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눈이 온 다음날, 청량한 하늘과 함께 떠오르는 그 분을 생각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한다.

김미란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우회집초기 화면

AjouMC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ajoumc.or.kr



기획 단계부터 차별화 전략으로, 볼거리, 읽을거리가 많은 아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www.ajoumc.or.kr 이 개설 2주년을 맞았다.

살아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2년간의 아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www.ajoumc.or.kr의 운영현황을 정리해 본다.

아주 특별한 초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http://www.ajoumc.or.kr)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ajoumc.or.kr 이 개설 2주년을 맞았다. 새로운 발상과 획기적인 구상으로 야심차게 운영해 온 지난 2년을 돌아보며, 2003년 운영현황을 정리해 본다.

● 볼거리, 읽을거리 많은 www.ajoum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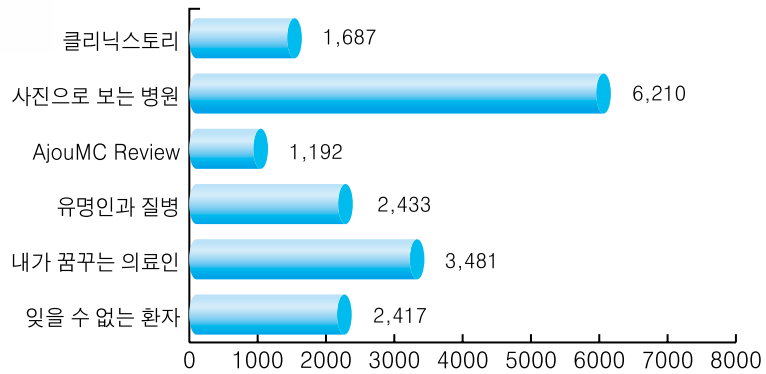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은 홈페이지 기획 단계부터 아주대학교병원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볼거리, 읽을거리 많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www.ajoumc.or.kr은 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인 i-AjouMC와 클리닉스토리를 탄생시켰다.

▲ 잊을 수 없는 환자 ▲ 내가 꿈꾸는 의료인
▲ 유명인과 질병 ▲ AjouMC Review ▲ 사진으로 보는 병원 ▲ 명가명소명인 등 아주대학교병원 내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i-AjouMC

한다.

지난 1년간 i-AjouMC와 클리닉스토리 중 가장 원활히 운영된 코너는 바로 「유명인과 질병」이다. 총 9개의 새로운 내용이 제공된 유명인과 질병은 아주대의료원소식에도 함께 게재되고 있는 코너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유명인들이 걸린 질병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질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명인과 질병은 모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매우 자랑스러운 코너가 아닐 수 없다.

〈도표1〉 주요 콘텐츠 조회현황



와 ▲ 비만클리닉 ▲ 통증클리닉 ▲ 불임클리닉 ▲ 유전학클리닉 ▲ 라식클리닉 ▲ 학습 및 발달 증진클리닉 ▲ 페이스클리닉 등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이야기로 구성된 클리닉 스토리는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만의 자랑이다.

이들 콘텐츠를 2년간 운영하다 보니, 처음의 계획대로 비교적 주기적으로 잘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어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주는가 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도 있어 늘 안타까움을 더

유명인과 질병이 가장 잘 운영된 코너라면, 가장 사랑받은 코너는 단연, 「사진으로 보는 병원」이다. 그 중에서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차례에 나눠 게재된 「수술실 포토탐방」은 매회 평균 2,600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수술실 포토탐방은 지난 2002년 9월 아주대의료원소식 특집으로 수술실 안의 일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당시 지면을 통해서만 흑백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실의 생생한 모습을 전할 수 있어 위안이 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 포토탐방을 통해 수술실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긴박함과 그 속에서 꽃피는 의료진들의 참다운 의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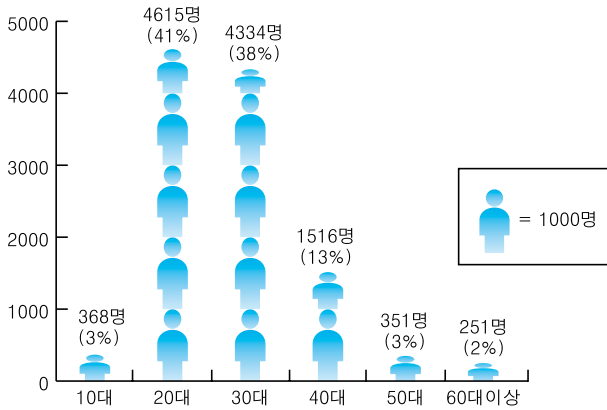
이외에도 아주대학교병원은 작은 변화,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항상 새로운 홈페이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기존의 메인화면을 약간 변화시켜 i-AjouMC와 클리닉스토리를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배치하고, 의원원 내 주요뉴스를 사진과 함께 전하는 「포토뉴스」를 신설, 메인 상단에 배치하여 의원원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가 그린 명량만화 「해

랑선생의 일기」를 새롭게 제작하여 운영하는 한편,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www.ajoumc.or.kr을 찾는 사람들

2년간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은 총 11,435명. 2002년 등록회원 수 4,829명에 비해 2003년 한해동안 6,606명이 새로 등록하여 37%의 회원가입 증가율을 보였다. 회원 가입 증가에는 ▲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인지도 증가 ▲ 꾸준한 콘텐츠 개발 노력 ▲ 비공개 방식으로 원활하게 운영 중인 온라인 상담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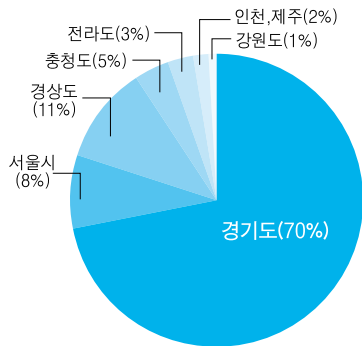
〈도표2〉연령대별 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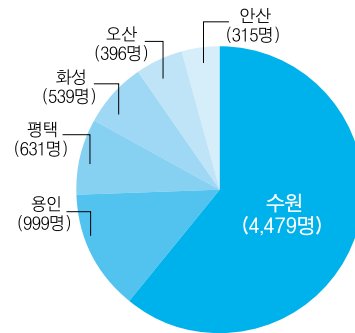
2003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성별 회원 구성에서는 남자 회원이 5,481명, 여자 회원이 5,914명으로, 성별 회원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회원이 4,615명, 30대가 4,334명으로 총 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40대가 1,516명, 10대가 368명, 50대가 3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포는 20·30대가 주요 인터넷 사용 연령층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에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40대도 온라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많이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60대 이후 노년층의 회원도 180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도표2〉.

〈도표3〉지역별 회원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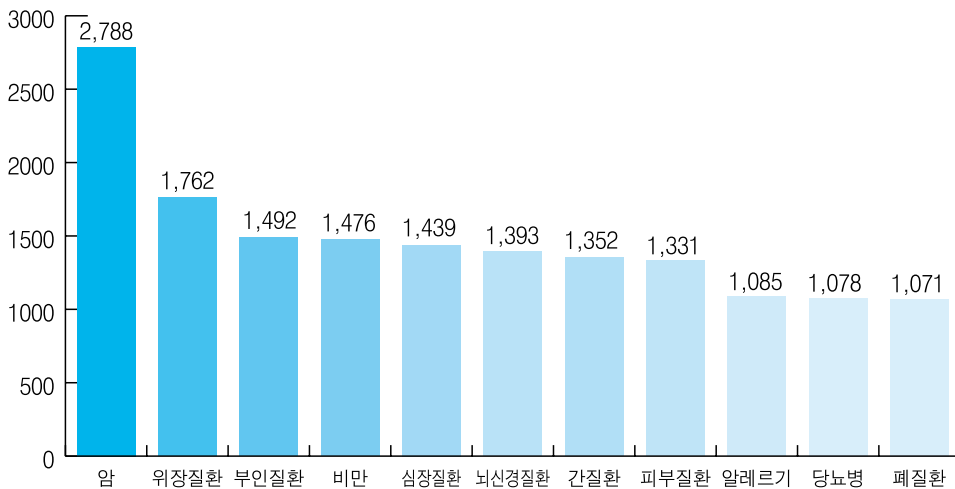
〈도표4〉경기도 주요 도시 회원가입 현황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지역별 회원현황에서는 경기도 거주 회원이 8,66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아주대학교병원이 경기남부

〈도표5〉회원들의 주요 관심 질병



지역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으로, 경기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중심병원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치해 있는 수원시 거주자가 4,479명, 용인시 거주자가 999명, 평택시가 631명, 화성시가 539명 등 아주대학교병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내원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986명, 서울 976명, 충청남도 328명 등 전국적으로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도표3, 4〉.

한편, 일반인들이 어떠한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묻고 있는 관심 있는 질병 분야를 분석해 본 결과,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찾는 회원들은 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장관질환, 부인과질환, 비만, 심장질환, 뇌신경질환, 간질환, 피부질환, 당뇨병, 폐질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표5).

2003's New Contents

Photo News



아주대의료원 내의 소식을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홍보팀은 2003년 7월1일, 사진과 함께 뉴스를 전하는 포토뉴스를 새롭게 개설했다. 개설 이후 12월31일까지 총 34편의 소식을 전한 포토뉴스는 나름대로의 뉴스 전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포토뉴스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의

학 전문지 기자 분들도 간간히 있어, 텍스트 뉴스만을 전하는 What's New 와 달리, 의료원 소식을 전함에 있어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2004년에도 포토뉴스는 아주대의료원 내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랑 선생의 일기



해랑 선생의 일기는 아주의대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가 그린 명랑만화이다. 17년간 해부학을 가르치며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소재로 해부학은 물론 더 나아가 의학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랑 선생의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정민석 교수. 홍보팀은 만화라는 재미있는 매체를 통해 의학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카툰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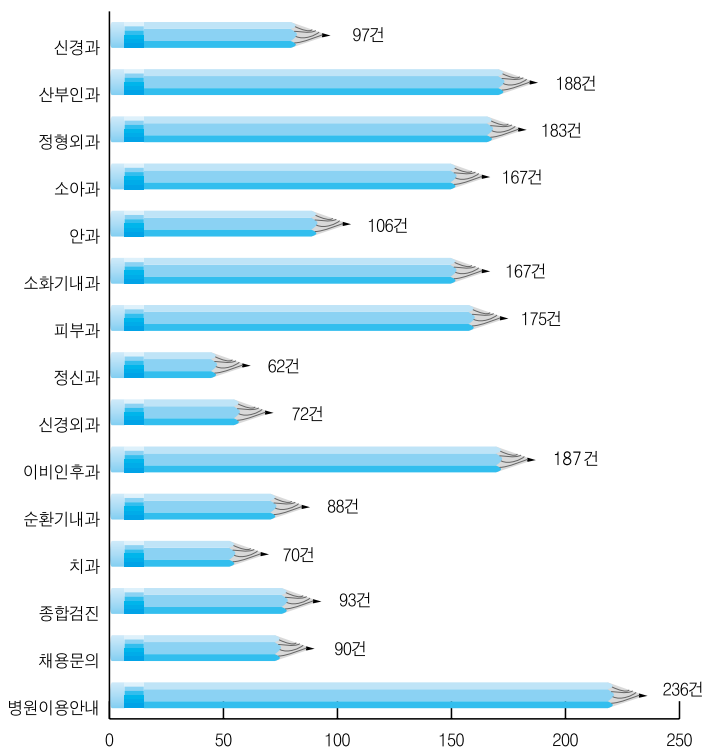
랑 선생의 일기」를 홈페이지 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정민석 교수가 손으로 그린 만화를 홍보팀에서 일러스트 작업하여 탄생하는 해랑 선생의 일기는 200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 총 6편이 게재되었으며, 20회까지 연재될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도표1>진료과별 Q&A 접수현황



이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Q&A는 비공개, 실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자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질문자의 메일로 1:1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운영방침은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비교적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고 상업적인 글의 게재를 피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2년간 이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Q&A로 접수된 질문은 총 4,616건. 이중 2003년 한해 동안 접수된 질문은 2,760건으로, 매달 평균 230여건, 매일 평균 8건의 질문이 접수됐다. 2002년 1,856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49%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접수된 질문 중 장난성이 있거나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제외한 2,599건에 대해 답변을 제공, 94%의 답변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Q&A를 통해 접수되는 질문은 질병 및 건강상담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며, 진료과 및 병원이용에 관한 사항, 종합검진, 채용에 관한 문의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Q&A는 병원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민원창구로서의 역할도 특특히 하고 있다.

이중 2003년 접수된 질문을 임상과별로 분류해 본 결과,

아주대학교병원은 건강상담 및 병원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온라인상담, Q&A를 운영하고 있다. 비공개, 실명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질문하신 분에게 메일을 통해 1:1로 직접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Q&A 운영현황을 분석해 본다.

산부인과 관련 질문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관련 질문 187건, 정형외과 관련 질문 183건, 피부과 관련 질문 175건, 소화기내과와 소아과 관련 질문이 각각 167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고, 과의 구분을 떠나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소아질환 질문이 많았다(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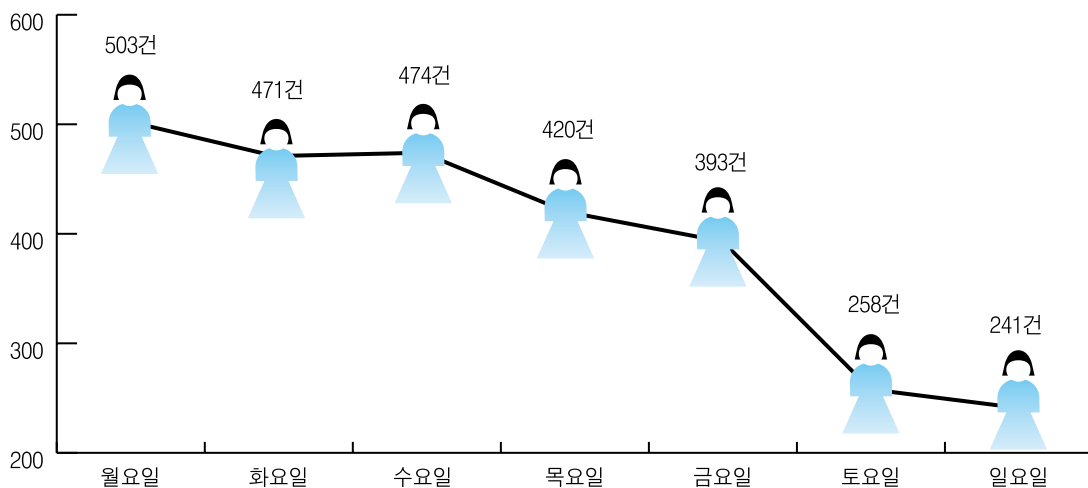
2003년 Q&A 접수현황을 정리하며, 재미있는 통계를 내봤다. 질문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날은 언제일까?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올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질문한 횟수는 얼마나 될까? 등등

2003년 열두달 중 질문이 가장 많이 접수된 달은 6월이었다. 총 293건의 질문이 접수되어 평균 230건보다 60건이나 더 많은 질문이 접수됐다. 또한 365일 중 10월19일에 19건의 질문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날로 집계됐다. 한편,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요일은 월요일로, 평균 9.7건이 접수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월요일 이후로 한 주가 지남에 따라 화, 수, 목, 금, 토, 일 순서대로 질문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도표2). 그리고, 지금까지 한 회원이 12건의 질문을 한 경우가 최다 질문 횟수로 기록되고 있다.

2년간 Q&A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단골 고객도 생겼다.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어떤 회원 분은 최근 올리신 질문에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생활에 많은 활력소가 된다”고 써 주시기도 했다. Q&A의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아주대학교병원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생활에 활력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 결코 질문 하나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운영을 시작한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Q&A가 2년의 시간을 지나며 이제는 어엿한 건강상담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년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대학교병원은 아픈 이웃들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상공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표2〉요일별 Q&A 접수현황



온라인 상담, 질환에 대한 가이드로 활용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온라인 건강상담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준 교원들 중,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 교수를 만나 온라인 상담에 참여하면서 느낀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온라인 상담은 어디까지나 비의료인이 표현하는 증상과 관찰한 것에 의한 정보만으로 상담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진찰을 받고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담내용에 대한 어려움보다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결국 관심과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일에 바쁘다보면 온라인 상담에 대한 우선 순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상담 자체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에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개인과 병원의 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항상 환자를 걱정하는 친절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온라인 건강상담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온라인 건강상담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진료 현실상 의사와 충분한 상담과 진찰을 받기 어려운 상황과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well being 혹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20, 30대의 젊은 세대에는 일차적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 향후 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온라인 상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온라인 건강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 자체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과 대화에 참여하고 의료인이든 일반인이든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의 일부는 편향된 관심, 지식과 지협적인 경험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추천하는 등의 오류와 맹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상술적인 측면도 있다고 한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병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지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이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찰과 검사 전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특별한 치료 등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병과는 상관없는 치료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온라인 상담을 했던 분들 중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는

기억나는 환자는 구취로 인해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급기야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도 문제가 있어 괴로워하는 환자였다. 인터넷 상담 후 대전에 살던 이 환자가 외래로 찾아와서 진찰을 받고 수술 후에 구취가 없어졌다고 감사 메일을 보내오기까지 했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환자를 직접 진찰하니 단골 환자와 같은 친근감과 반가움이 있었고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가 적극적이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한 환자는 외래에서 수술에 약을 한 후에 환자 자신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다.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았지만, 수술 전 궁금한 사항을 답해 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감사해 하는 환자를 볼 때 나름대로의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

끝으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질환에 대한 가이드로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진찰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싶다.

아주 편리한 아주대학교병원 온라인 제도

인터넷 시대,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쇼핑을 하고, 티켓을 예매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온라인 세계는 갈수록 현대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방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제도는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온라인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기다림이 없는 진료예약, 온라인 진료예약

아주대학교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한 서비스는 바로, 온라인 진료예약이다. 입력 즉시 예약되는 Real Time 온라인 예약은 아니지만 전화예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진료예약을 이용한 회원은 약 2,500여명. 기존의 전화예약은 이용객이 많을 경우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예약현황을 서로 설명하고 조율해야 하기에 1인 예약시간이 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진료예약은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진료과와 교수, 진료일시를 미리 입력하고 예약 담당자는 적당한 진료 가능일을 파악한 후 환자에게 전화를 드려 예약을 해 드리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진료예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좋은 일도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자원봉사 신청

아주대학교병원은 자원봉사를 원하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한 분들은 80여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개개인이 원하는 봉사활동과 시간대 등을 미리 숙지한 후 상담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병원 내 자원봉사 활동과 연결하고 있다.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중 자원봉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약과 결과조회를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건진 서비스

아주대학교병원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편리한 건강검진센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건진예약에서도 온라인 진료예약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검진 프로그램과 검진일자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적합한 검진일자를 조정하여 예약을 해 드리고 있으며, 검진을 예약하신 분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건진 예약일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종합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검진을 받는 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단한 의료상담은 집에서, 복약상담 및 온라인 상담

웰빙 라이프(Well-Being Lif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이용객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약상담과 온라인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약상담은 올바른 약 복용 방법에 대해 약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서비스로, 전문적이고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 Q&A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질병 및 병원이용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사명감을 알게 해 준 소중한 경험

며칠 전 눈이 참 많이 내렸다. 온통 하얀 설원의 풍경이 나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새하얀 눈을 보면서 올해로 10년이 되어가는 병원생활을 돌아보며 나를 현재까지 있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와 환자의 인연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신장이식 환자와의 인연은 나에게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간호의 의미를 알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약 10여년 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이론과 약간의 현장경험만을 가지고 아주대학교병원에 갓 입사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던 신규 간호사 때였다. 처음으로 신장이식 환자를 돌보는 밤 근무를 했었다. 그 환자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입원을 한 후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받은 젊은 남자환자였는데 신장이식 후 무척이나 아파했고 자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밤을 지새우며 간호를 하는 동안 환자는 나에게 그동안 투석치료 때문에 힘들었던 일,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며 걱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동생에게 미안함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그에게 내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위로해 주었던 일이 생각난다. 신장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소변이 잘나오고 요독수치가 내려가면서 함께 기뻐했고,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보며 환자가 신장 이식수술 후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준비하였다. 퇴원일이 되어 환자

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퇴원 후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난 후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간호사가 된 나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고 진정한 환자간호의 느낌을 약간은 알 것만 같았다.

지금은 어언 10년차의 간호사 생활을 해온 나이지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고, 우리 아주대학교병원의 간호사들이 모두 초심에 느껴 보았던 마음이라 생각한다.

요즘 간혹 신문지상에 자신의 신장을 타인에게 공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미담으로 실리곤 한다.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신장을 또 다른 타인에게 공여하여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자주 보곤 한다. 이러한 신장공여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간호로 인하여 더욱 소중히 여겨지며 신장이식 환자들이 퇴원 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우리 간호사들의 간절한 마음일 것이다.

박은영 간호사 / 7층 서병동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기증 TFT ·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외과, 큰 매력이 존재하는 곳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될 무렵 서울에 위치한 모 병원들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짧은 방학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에 아주대학교병원 외과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과대표가 전해왔다. 2학기에 있었던 외과수업에 흥미를 갖게 된 4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다. 물론 학생실습이 아니라 인턴십이므로 소정의 아르바이트비를 주신다는 말씀 역시 동기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말고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2월30일부터 3주간의 서브인턴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4명은 서로 다른 파트에 나뉘어 나는 서광욱 교수님, 다른 학생들은 각각 홍정 교수님, 김욱환 교수님, 한상욱 교수님께 배정되었다. 우리는 아직 학생실습을 나가지도 않았고, 인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단연 아무 것도 몰랐던 첫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부끄럽게도 책에서 배운 몇 가지 지식들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담당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스텝, 레지던트, 인턴선생님들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덕분에 하루 하루 조금씩 익숙해졌다.

선생님들 회진을 따라 돌고, 환자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수술방에 들어가고, 병동에서는 차트를 읽고 써보기도 했다. 단지 외과가 어떤 곳인지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과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외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방 들어가는 원칙도 잘 몰랐던 우리는 수술 기운 입기 및 손세척의 방법, 무균조작 등을 배워갔다. 수술 후 조직 표본을 병리실에 보내는 일, 환자를 옮기는 일, 풀리 카테터를 넣고 빼는 일 등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병을 접하는 각각각색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달라지는 모습, 좋지 않던 상태의 환자가 호전되던 기쁨 등의

사와 환자의 관계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3주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사가운을 입은 우리에게 환자분들의 은근한 기대와 호감이 전해져 올 때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짜릿했다.

병원 안에서 간혹 만나는 선배님들이 「어차피 외과실습을 돌면서 할 일인데, 평생 병원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라고 하시면서 「한 달뿐인

방학 때 놀지 않고 무엇 하나는 말로 마음을 흔들리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짧은 방학에 대한 아쉬움으로 기운이 빠지면서 「나의 선택이 틀린 것인가, 학교 밖의 경험을 더 해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병원 안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보고 배우면서 의사란 직업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다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과란 단지 수술만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리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의 완치와 재발을 관찰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외과 의사들의 고충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다. 물론 외과가 힘든 곳 중의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큰 매력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새삼 느끼게 된 3주였다. 짧은 방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짧아졌지만 수료증을 받을 때의 기쁨이 있었기에 전혀 후회는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히 서 있다가 나를 갈고 닦아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다음 번의 서브인턴십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배가 있다면 가까이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 1월20일 개최된 제1차 외과 서브인턴십 수료식에서, 외과 조용관 주임교수와 서광욱 수련담당교수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과란 단지 수술만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리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의 완치와 재발을 관찰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외과가 힘든 곳 중의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큰 매력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느꼈다.

의료원 ▶▶▶

아주대학교 제11대 박재운 총장 취임식 개최

- 세계적 아주 사업 추진할 터 -



아주대학교 박재운(朴在潤·62) 제11대 총장 취임식이 1월15일 순화규 경기도지사, 김우식 대학교육협의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 어운대 고려대 총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재운 신임총장은 취임사에서 아주대를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 아주(亞洲)사업(Global Asia Project, GAP)」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주대가 전국 대학 중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아시아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12년 장기계획 중 초기 4년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원 및 아주대학교 2004년 신년하례식 개최



의료원은 지난 1월2일 금요일 오전 8시 교직원 식당에서 새해를 맞아 교직원 상호간에 새해인사를 위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신년사에서 김효철 의료원장은 『아주대의료원은 2,500여명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으며, 각자 최고의 연주가 되어야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듯이 의료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줄 것』과 『2004년 9월 개원 1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에 교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주대의료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아주대학교는 1월5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신년 하례식에서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아주대학교를 떠나는 오명 전 총장은 『입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며, 아주대학교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일만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아주대학교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떠나더라도 아주대학교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으며,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효철 의료원장은 의료원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오명 전 총장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 OPEN

의료원은 지난 1월7일 수요일 오후 5시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의과대학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오는 9월 아주대의료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아 비전 설립과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오픈식에서 김효철 의료원장은 『사무국은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비상소집 훈련 실시

의료원은 지난 12월27일 오전 5시30분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비상소집은 간호부 수간호사 이상 및 그외 부서 6급 이상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발령되었으며, 대상직원 210명 중 약 90%의 인원이 참여했다.

의료원은 향후 비상연락망 전달체계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연 2회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1회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월30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첫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교직원 월례회에서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가 「변화 혁신 & 리더쉽」에 관한 교양특강을 실시하고, 해외연수 보고회가 있었다.

의료원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의과대학 ▶▶▶

메디챔버, 개원 10주년 기념 정기공연개최



의과대학 Medic Chamber 오케스트라단이 의료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제15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3월3일 오후 7시 수원시 청소년문화회관 온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문성균 교수,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수혜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성균 교수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중 협동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 2년간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청각장애자 언어재활 교육을 위한 인체 조음기관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연구」로 당해년도 연구비로 70,02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병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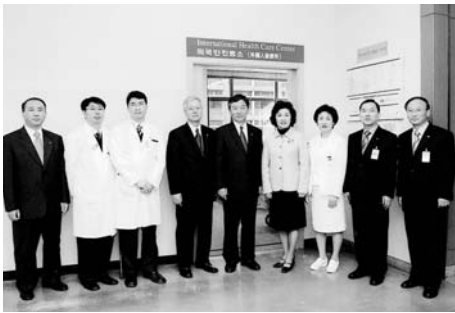


신경외과, 뇌동맥류 수술 1,000례 돌파

병원 신경외과는 최근 뇌동맥류 수술 1,000례를 돌파하여 지난 1월15일 오전 8시 신경외과 외래에서 뇌동맥류 수술 1,000례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효철 의료원장, 홍창호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효철 의료원장은 『「뇌동맥류 수술 1,000례 돌파」라는 성과를 올린 신경외과 모든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신경외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한 부분이 파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두개골을 절개하고 뇌동맥클립이라는 기구로 뇌동맥류의 목을 결찰하는 방법과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코일을 삽입하여 뇌동맥류를 막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진료소 개설

병원은 외국인 진료소를 개설, 지난 12월29일 월요일 개소식을 가졌다.

외국인 진료소는 병원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진료공간으로, 선진 외국 병원처럼 쾌적한 진료공간, 넓은 대기공간, 효율적인 외국인 진료 안내 서비스를 한자리에 갖추고 있다.

이번 외국인 진료소 개설은 최근 병원을 찾는 외국인 외래 환자수가 월 평균 5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1994년 9월 오산 미공군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이후 2003년 7월 21일 미국군 121 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음으로써 외국인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이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개설

병원은 일반인들에게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www.eesik.net)를 개설, 2004년 1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는 센터소개, 장기이식, 장기기증 이라는 세 개의 메뉴로 구성, 장기이식센터 소개, 간장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생체간장기증, 생체신장기증, 뇌사자 기증에 관한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각의 메뉴마다 대상자, 이식 또는 기증절차, 의료진, FAQ 코너를 두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식받거나 기증하기를 원하는 장기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신규 간호사 직무교육 실시



병원은 지난 1월 8, 9일 양일간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2004학년도 정규직 임용예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신규 간호사의 기본소양을 제고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직무교육은 ▲ 관련규정 ▲ 법정교육 ▲ 직무교육 ▲ 친절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격려사에서 홍창호 병원장은 「신규 간호사의 입사를 축하하며, 아주대병원 간호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사업팀, 자원봉사 설명회 개최

사회사업팀은 1월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자원봉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설명회는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2.25	주간조선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애주가 똥보 각오하라
12.30	경인일보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외국인진료소 문열어
1.7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폐기종 걸린 폐
1.10	매일경제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40대 금주, 최고 10년 젊어져
1.13	국민일보	외과 조용관 교수	암을 알자, 암을 막자-위암 전문가
1.14	한겨레	소아과 이수영 교수	고향길 설레다 아이들 탈날라
1.1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축척진 위
1.16	경인일보	가정의학과 김병택 교수	설연휴 건강 지키기
1.22	주간조선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똥똥해진다
1.27	국민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외과 왕희정 교수	암을 알자, 암을 막자-간암 전문가
1.27	한국일보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살 안찌는 쌀 나온다
1.27	경인일보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살 안찌는 쌀 나온다
1.28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디스크
1.28	경인일보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청각장애아에 맑은 소리를 ...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3	SBS 모닝와이드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대상포진
1.8	KBS 세상의아침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기능쌀
1.9	KBS 9시뉴스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어린이 약물사고 무방비
1.20	KBS 행복충전 100세인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감상선 질환
1.20	KBS 생로병사의비밀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거친 음식을 먹어야 장수한다
1.21-22	KBS 설특집	내분비내과 이관우 교수	쌀

도서기증



-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서정호 교수 - 「RADIOLOGY」 외 175권의 진단방사선과학 관련 의학도서
- 소화기내과학교실 - 「Gastroenterology」 외 저널 100여권
- 홍보팀 오은영 - 「좋은 정서경험이 올바른 인생을 만든다」 외 6권의 일반교양도서
- 비뇨기과학교실 김영수 교수 - 「난중일기」외 49권의 일반교양도서
- 산부인과학교실 - 슬라이드 메이커 1대

의과대학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는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양질의 일반교양도서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신경인성방광은 회복이 가능한지요



Q 2002년 11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흉추와 요추가 압박 골절되어 신경인성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주어도 소변이 거의 안나왔는데, 지금은 아랫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사정력과 발기력이 약화된 것 같은데 추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A 방광이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광이 충만될 때까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방광속의 소변을 충분히 배출시켜주는 기능으로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그 이상 유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방광의 저장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 즉 방광 수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아랫배에 힘을 주어서 소변을 보는 것 보다는 자기도뇨법이 귀찮지만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 수축력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방광이나 신장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정력 약화와 발기력 감소의 경우는 검사를 해보아야겠지만 발기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력이 감소되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상을 받은 시기가 2002년 11월로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으니 좀더 기다려 보면 기능의 호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과 같이 젊은 사람의 경우는 방광이나 성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가 호전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니 현재의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비뇨기과 최종보 교수 〉

비뇨기과 외래 031- 219-5585

납중독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나요?

Q

만 5세된 딸이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현미경적 혈뇨가 있었고 올해 10월 신장조직검사 결과 조직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검사결과 납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납성분이 과다하게 인체에 축적될 때 뇌와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납 때문에 혈뇨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A

납(lead)에 수년간 노출된 병력이 있을 경우 만성 납신증(chronic lead nephropathy)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장지대, 도로변 등 먼지가 많이 날리고 공해가 심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고,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한약제 등을 복용시에 그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단은 작업환경을 다루는 산업의학과를 찾아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납에 의한 신장질환의 경우 신조직검사시 세뇨관간질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는 신조직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셨기 때문에 납신병증을 확진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며, 기본적 검사에서 특별히 건강을 위협하는 소견이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연 2~4회 요검사를 하며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기본적 검사가 정상이므로 현미경적 혈뇨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대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착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우선 납중독에 대하여 진찰을 받아보시고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소아과 배기수 교수 >

소아과 외래

031-219-5619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건강의 적, 스트레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8년 보건외식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최소한 1/3 이상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50대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나 성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정답 : × >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머리가 아픈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중증질환에 의한 두통 또는 몇몇 난치성 두통을 제외하고 근육의 만성적 긴장으로 유발되는 긴장성 두통은 부신피질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교감신경계가 자극되고 머리 주위의 근육이 이완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수축으로 오는 통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근본 원인이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답 : ○ >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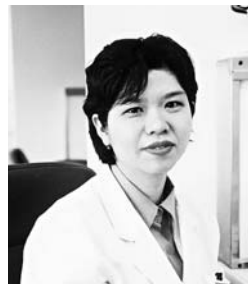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와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와는 무관한 음주습관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음하게 되면 serotonin, dopamin, opioid peptide 및 vasopressin 등 신경전달체들의 뇌세포외액내 농도가 감소하게 되며, cortisol과 catecholamine의 유리를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혈당 증가, 동공확장, 혈압상승 뿐 아니라 성장호르몬의 유리도 증가시켜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분해를 촉진하므로 케톤체의 생합성을 증가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정답 : × >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긴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긴장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요인이란 무엇인가. 우선 부적절한 환경이나 복잡한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요인에도 개인에 따라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내적요인이라 합니다. 남보다 비관적인 생각, 과도한 분석, 경직된 사고, 완벽주의자 등은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들어주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어느덧 당신은 스트레스에서 유연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 정답 : ○ >



박 셋 별 교수 / 가정의학교실



엄마(母)와 아기(兒)를 위한 특별한 공간, 연세모아병원

Woman Friendly, Baby Friendly Hospital

연세모아병원은 연세대의대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 8명으로 구성된 산부인과 중심의 여성전문병원으로, 인간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이념 아래 2002년 2월 수원의 신중심지인 영통지구에 개원하였다. 올바르고 새로운 출산 문화를 선도하며,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비전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 및 「정직한 의료」 제공이라는 경영방침을 세우고 연세모아병원은 더 이상의 산부인과 병원이 아닌 엄마(母)와 아기(兒)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원한 지 첫돌이 채 되지 않아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인증(산업지원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서비스경영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양승승 원장 외 130여 직원 모두가 개원 6개월 전부터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쳐 일궈온 차별화된 경영철학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차이」를 강조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연세모아병원에서는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중소병원에서는 아직 도입단계라 할 수 있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개원시부터 도입하여 CRM 표준화를 확립해 가고 있다. 즉 다양하게 구분된 고객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학정보와 그들에게 맞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접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다. 연세모아병원은 고객의 불편사항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 운영하여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병원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원 초기부터 시작한 유니세프 후원활동



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연세모아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고객에게 호텔 같은 쾌적함과 내 집 같은 편안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편의 위주의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커피라운지, 산모의 회복과 보호자들의

휴식을 위한 별도의 산모 휴게실, 출산으로 수고한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 감겨줄 수 있는 미용실,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전자동 물침대가 있는 수(水)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인을 위한 야간 진료 및 공휴일 진료 실시와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분만실 등에서 연세모아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확인되고 있다.

맞춤분만 서비스에서 모유 수유 권장서비스까지

연세모아병원은 「이제는 분만도 맞춤시대」라는 신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맞춤분만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족 분만, 소프톨로지 분만, 르바이에 분만, 무통 분만, 아로마향 분만, 공 분만 등 다양한 분만 방법들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신세대 산모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출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가족분만을 권장함으로써 출산 시 남편과 가족들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도하여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연세모아병원은 모유 먹이기를 적극 권장하고 국제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 배출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가운데 95%가 모유 수유에 성공한 이유는 국제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퇴원 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병원에서는 모유 수유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전용 산모복을 제공하고 유방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모유 수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제(母子同室制)를 실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투명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생아실과 수유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하는 등 산모와 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특별한 공간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주대병원과 함께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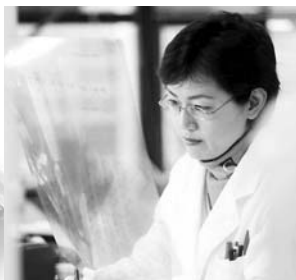
연세모아병원은 개원과 함께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여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연세모아병원은 산부인과 중심의 여성전문병원으로서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의 산부인과학교실과 응급의학교실 그리고 신생아중환자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열려 있는 마인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뛰어넘어 엄마(母)와 아기(兒)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연세모아병원이 앞으로도 병원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 영 배 팀장 / Q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총계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 | | |
|----------|------|-------------------|
| • 지로납입 | 전화신청 | 031-219-4000 |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 | 제일은행 | 692-20-166907 |
| | 한미은행 | 542-00896-248 |
| | 농협 | 116-01-060243 |
| | 국민은행 | 593501-01-082841 |
| | 우리은행 | 177-089499-13-102 |

● 후원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주대학교 의료원발전 후원회 사무국(031-219-400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3명	4,600,000원	8,734,000원
누 계	335	1,791,325,531원	1,735,138,33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의료원 납입분>

김진홍	2,000,000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
아라코	2,100,000	장례식장
황주현	500,000	의학부 4년 황의경 학부모
교직원 분납분	6,134,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3.12.26~2004.1.16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설연휴 동안 지역주민 위해 비상 근무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설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운영, 경기남부 권역내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편이를 제공했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경기도내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료계획을 통보받아 정보센터 직원을 비롯한 공중 보건 의사와 자원봉사자 등 총 23명이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7,723건),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지도(117건), 구급차 출동 (17건) 등 총 7,857건을 접수, 신속하게 처리했다.

서비스 운영 노선 (운영간격 : 20분)

-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릭! 아주대 학교 병원 홈페이지



본 다들 즐기실 수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응급의료센터	의사명	진료 시간(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남중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월, 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응급의료센터	의사명	진료 시간(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유전과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관절,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압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정용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및 갑상선 질환	★
	윤태일	4743	금	수*	유방 질환 및 내분비 질환 *은 밤모름 시술만 시행	★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스어·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 시간(분)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 내과	심부전클리닉 5717	최병일	5974	월	
		정혁재	5975	목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목	월, 수
알레르기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월, 수, 목	목(레이저치료)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수	
		김선웅	5858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신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김미란	5597	화, 목, 토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금(1주, 3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금(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택태	5957	월, 수, 목	월, 금
		신상호	5957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고석민	5869	화	수
		황병남	5957	금	월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2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김도현			목	소화기질환	
	송현주			수	소화기질환	
	이은희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심부전, 심장질환, 고혈압	
	황교승	5975	목	월, 목	부정맥, 전기생리적심장, 전극도자결재술, 인공심박동기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장학재	5975	금	월, 목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최태영	5975	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일반진료					
후암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목	월, 수	에이즈 환자로 인한 결핵, HIV/AIDS, 폐렴, 기타 감염질환	★
	오윤정	5968	월, 수, 목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신승수	5968	수, 토	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상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상질환	
	김대중	5961	월, 목	화, 수	당뇨병, 비만, 갑상선질환	
	일반진료	5961	토		내분비대상질환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김명성	5971	토	수	신장질환	
	일반진료	5971		화		
중앙혈액내과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목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5905	수, 금	수	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남동호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월, 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
	최정희	5905	목	월, 화, 금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일반진료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수,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소원	5621	수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 오전은 심장 초음파 가능)	
	황진순	5619	수, 금	수	소아내분비 질환	
	박준은	5619	수, 금	월, 수, 목	소아혈액·종양	
	일반진료		월~토	월~금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영연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토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목, 금	뇌혈관질환	★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안정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성낙	5912	(예약), (예약)		베제트병, 화학박피술	★
	이은소	5912	월, 화, 목	(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제트병(화·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목, (예약)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금:레이저치료)	★
	레이저치료			화,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5913	월~토	월~금			
외과	김명옥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이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광우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근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소화기질환	
	김유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성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외과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	
김정은	4744	목, 토		담도계질환, 복강경수술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수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	
김홍	토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의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수, 금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강준규	5750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5717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절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조재호	5542	금	수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는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5663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5612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5612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5612	월~토	월~금			
산 부 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 , □	월, 수, 목, □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일반진료	5643	월-토	월, 수, 목, 금			
	안 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 (예약), □ (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 비 인 후 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 (안정클리닉)	월, 목	중이염, 난청(유전성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	
	장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음성클리닉)	월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5746	화, 토		난청, 부비동염		
일반진료	5746	월-토	월-금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폐노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일반진료	5587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 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5802	일반진료	5795	화	목		
진단 사 선 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월, 수, 금	혈액종양(림프종,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일반진료	5854	수, 금, 토	화, 목		
치 료 방 사 선 과	전미선	5884	해외연수중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일반진료	5884	월-토	월-금		
핵 심 의학과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원 의학과	이경중	5645		화		
	박재범	5645		목		
5644 5606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 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수,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월,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중천	5958	토	수	갱년기, 금연	
	정유지	5958	화	화		
5959	일반진료	5958	월-금	월-금		
치 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5869	일반진료	5869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료수가 과해로 진료료 합니다.	

진료과명 입수번호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 급 의학과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중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